

#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2차 세션, 감사기도, 골로새서 1:1-14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14절에 나오는 감사 기도, 2차 세션입니다.

성경 연구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서 다루었던 감옥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옥서신의 서론을 살펴보았고, 또한 골로새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저자 문제와 서신의 맥락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고, 저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 이 서신이 왜 쓰여졌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서신의 내용을 실제로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강의를 빠르게 시작하여 서신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에서 바로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골로새서 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런데 목적, 영어 단어인 목적은 미국, 영국, 유럽, 동유럽,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에서 여러 번 들었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들 나한테 그 단어 발음을 모른다고 하더라. 그리고 제대로 발음해야 해 . 목적, 내가 목적이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PURPOSE야.

좋아요, 그럼 골로새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이 편지가 쓰여졌을까요? 이 편지는 교회의 몇 가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를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뭔가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일요일에 모여서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성당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모이면, Amazing Grace와 같은 멋진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 인, 지켜야 할 교회와 영광을 돌릴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일어나서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런 상상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교회에 대해 언급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집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평균 크기는 50명입니다. 그들은 와서 노래하고, 식사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교회를 상상할 때, 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거나 알고 있는 메시지를 왜곡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고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거짓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글썄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 특히 콜로새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가 그들이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유대교와 이교도의 어떤 형태가 뒤섞인 혼합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산테리아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기독교와 이교도 활동이 뒤섞인 신비주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많은 해설자들이 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 내의 영지주의적 영향이나 영지주의적 활동을 다루기 위해 쓰여졌다는 오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지주의가 실제로 1세기 말까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세기에 영지주의적 활동이 등장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새서는 영지주의나 과거 학문에서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로 특징지어지는 영지주의적 개념을 다루고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문에서 그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 모자를 쓰고 콜로새서 2장을 살펴보면 쉽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철학적 영향이나 전통을 다루기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학계에서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한 가장 약한 견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콜로새서 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철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받아들여지고 아마도 유지되는 견해는 콜로새서가 실제로 어떤 형태의 종교적 융합에 맞서기 위해 쓰여졌다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대교와 이교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제 거기에 기독교를 더하면 이교도의 영향, 유대교의 영향,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교도의 전통이 도처에 있는 맥락입니다.

신이 정말 많았고, 정말 많았고, 제가 찾아낸 결과 중 일부는 실제로 마법 활동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마법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힘을 원했습니다.

마을에는 신사가 너무 많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 이러한 영향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철학자들이 세계의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활동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철학적 영향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내의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생각해보세요. 한 그룹은 이교도적

배경에서 왔고, 한 그룹은 전통적인 유대교적 배경에서 왔으며, 그들은 이 다원적 맥락에서 기독교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트 아놀드, 먼저,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트 아놀드는 현재 바이올라 대학교의 타바드 신학 대학 학장입니다. 클린트의 주장은 현재 가장, 아마도 가장 좋은 설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클린트는 우리에게 이러한 종합적 관점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린트는 이렇게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많은 해설자들이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로새 철학은 프리기아 민속 신앙, 지역 민속 유대교, 기독교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지역 신앙에는 몇 가지 독특한 프리기아적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마법이나 의식적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대교는 이미 이러한 지역적 신앙과 관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나톨리아 유대교의 마법적 하부 구조는 이미 이교도 신앙과 관습에 기여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과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선포되면서, 몇 년 후 교회 내에서 새로운 유행의 관행과 신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견에 따르면, 이 철학은 주변 종교적 환경과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합적 타협을 보았고, 저는 책에서 클린트 아놀드가 실제로 이 말을 썼고 제목에 종합주의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험한 타협으로 보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과 관련하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청중 여러분, 뉴욕시나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어딘가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최근에 주말에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고, 손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다루려고 하고, 그것을 그들의 기독교적 경험에도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아프리카적 맥락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적 맥락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온갖 것에 대해 이교도들과 상의하고 여전히 그들이 기독교적 삶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다루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진리의 참된 내용, 즉 복음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외부에서 온 것이 교회에 무언가를 가져오려는 거짓 가르침일까요? 내부에서 온 것일까요? 글썄요, 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특정한 이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콜로새서에서 특정한 이단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트 아놀드의 종교적 경향에 대한 주장은 학문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한, 증거는 내부자를 더 많이 가리키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철학, 이교도, 민속 종교,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영적 경험을 가진 모든 것에 손을 대려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절충주의 활동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거짓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가르침을 따르도록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종교적, 철학적 사고가 그들의 그리스도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편지 자체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휘튼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동료인 더글러스 문에게 양보합니다. 그는 콜로새서에 대한 매우 훌륭한 주석을 썼고 2장에서 자신의 관찰을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2장 8절에서 거짓 가르침이 공허하고 기만적인 철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영적 힘에 달려 있거나 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붙잡아야 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식단 제한과 유대인 명절의 금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금욕적 훈련을 장려합니다(18절과 23절). 그것은 천사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것은 환상적 경험을 옹호합니다.

상승하는 마음 에 의해 이유 없이 교만해졌다고 썼습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가 없고, 머리와의 연결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규칙을 장려합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의 복잡성, 교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콜로새서라고 부르는 편지가 쓰여진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다면, 1절을 보기 전에 이 편지에서 어떤 일반적인 주제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 또는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볼 주요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포함합니다 . 학자들이 랠리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감옥 서신에 대한 토론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을 알고,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필요한 지식, 앎, 학습에 대한 강조입니다. 학문에서 실제로 강조되지 않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에서 제가 학문에 기여한 주요 부분 중 하나는 이 서신에서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요 주제를 보지만, 때때로 콜로새서에 대한 책이나 주석의 제목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론, 높은 그리스도론, 중심인 그리스도, 최고인 그리스도, 창조주인 그리스도, 인간과 신과의 화해 수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가져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집어 들지 않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당신의 성경을 가져가세요.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NIV, ESV, NRSV와 같은 번역본이 있다면 제가 읽고 있는 글을 따라 읽으세요. 이번에는 ESV를 읽고 있습니다. 편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와우, 학자들아, 뭐랄까요, 여러분은 보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읽을 때 편지가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를 배우는 데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지의 첫 몇 구절을 읽고 살펴보면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형제인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인사말 중 일부를 너무 쉬운 것처럼 건너뛰어, 전달하거나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을 저자로 밝힌 사람이 바울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지만 그는 또한 그를 모르는 교회가 그와 중심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이 편지에서 더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는, 실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스스로 사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apostolos 또는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진 사람 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따른 사람의 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보내진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저명한 사람으로서 그의 일을 보고 그와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식별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한 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정당화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명확하게 확립함으로써, 실제로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입장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능하고, 수행하고, 쓰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뜻, 즉 공유된 신념이 교회 내의 거짓 가르침 문제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는 "나는 디모데와 함께 이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디모데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형제가 아니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허구적 친족 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자신을 그 가족에 넣음으로써,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여러분 중 일부는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편지를 쓰는 디모데도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공통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대 서신에서 매우 표준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는 교회에 인사를 하고, 그가 교회에 인사하거나 부르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썄요, 바울은 그들을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자들에게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 여기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교황의 시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누군가를 성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죄인이 된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장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행한 그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형제 라고 부르고 , 그들을 충실한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과 교회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서 불충실한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바울은 큰 그림,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들은 성인입니다. 그들은 충실하며, 그는 그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디모데가 첫 번째 줄에서 앞서 언급했듯이요. 그들이 충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와 자리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들이 충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충실하거나 실제로 자신을 행하는 방식에 충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들의 충실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들의 자리에 관한 한 그들이 충실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성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특히 콜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울에게 은혜는 단순한 자선의 말이 아닙니다. 한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이 있다면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올려 벌을 주고 바울 아, 네가 나를 박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라고 말하는 대신 그에게 무엇을 하실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는 바울에게서 신학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그 메모로, 그는 여러분에게 인사와 은혜를 보냅니다.

신으로부터의 평화. 평화는 행복감을 줍니다. 평화는 평화유지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자이신 분에게서 평화가 옵니다. 안에서부터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아버지 에게서 옵니다 .

에서 친족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로 묘사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형제로 묘사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을 세웠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실제 가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지중해의 틀에서 가족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성에 충실한 충실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합시다. 학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던은 우리가 이 인사에서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인사말 중 일부를 볼 때 감사해야 할 만큼 풍부한 단어입니다. Dunn은 유대인 인사말 평화 또는 샬롬의 풍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웰빙과 번영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 또는 내면적 평화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의 온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음 문단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 놓은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에 들었고,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영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몇 구절을 살펴보고, 이 시험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네 가지 창을 게시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둘째, 어떤 소식이 감사나 기도를 촉구했습니까? 셋째, 그들은 바울이 설명한 몇 가지 특별한 자질에 대해 어떻게 알았거나 실제로 무엇이 그 자질의 발전을 촉진했습니까? 넷째, 바울이 언급한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몇 구절을 좋아하고, 오늘 아침, 사실 이 구절을 다시 보고 이 구절이 얼마나 풍부한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있다면 웨스의 머리가 1장에서만 몇 번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은 1장에서만 나타나고, 그것은 당신이 이 장을 보고 즐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감사는 누구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3장,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지의 4절도 채 안 되는 몇 구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주목하세요.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이고, 성도들은 형제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행하실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자, 주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지시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대하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창조 전에 거기에 계셨고, 온갖 것들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그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혹은 제가 부르는 대로 창문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들었으므로,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놀라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본이 옳았을 뿐이지만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이 잘하는 몇 가지 영역을 상기시켜서 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으악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와 기도를 촉발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며, 그 전에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가톨릭 학자이자 친구인 마가렛 맥도날드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렛은 여기서 소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육성할 태도라기보다는 압수할 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용어는 영원한 삶의 동의어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모호하지 않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자질에 도달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잘 전달되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이는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에 들었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바울이 그저 지구를 돌아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세계 지리를 집어 들고 복음이 여기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아니요, 그는 복음이 알려진 세계로 퍼졌다고 말하는 표현을 만들려고 할 뿐이고, 그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그런 종류이고, 이 사람은 전 세계 여러 곳에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기서 건너될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교회에 대한 사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싶다면,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친족 언어를 사용하여 그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확립했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복음 진리를 한정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형용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는 진실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올바른 사람인 에바브라에게서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피브라스 , 우리는 7절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피브라스 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사역자이며, 그는 영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에피브라스 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

에피브라스 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양한 일을 하도록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라이코스 벨리에서 그의 사역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피브라스 와 그의 지위 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여기서 그는 전환하여 실제로 교회를 위해 9절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ESV에서 읽듯이, 우리가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이해력으로 그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기를 구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신 아버지 께 감사하시기를 구합니다 . 무엇으로? 빛 속에서.

왜? 13절에서 그는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기도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도되고 있는 교회를 위한 지식을 위한 기도에 주목하세요.

바울에게는 그들이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그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중 중 일부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여기저기서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파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이 비영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할 때, 신앙 공동체는 지식을 부여받아야 하며,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처리되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도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특정 영역에서 그들이 영적 지혜, 개념을 파악하고 실제 생활에서 처리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지혜는 영적 발전에 중요하며, 특히 거짓 교사가 주변에 있고 주변에 온갖 불경건함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국에서 교회가 가장 적은 매사추세츠에서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당신은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하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 바울의 기도가 실현됩니다. 사람은 영적 지혜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으로 충만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가는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 됩니다. 바울은 행동에 대한 영역에서도 특별히 기도하여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행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그들의 행실이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은유를 사용하여 영이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할 때, 당신이 그냥 멈추고 기도에 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할 때, 일어나는 일의 일부는 당신이 영의 열매, 즉 윤리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요하며, 바울은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증가하도록 기도합니다. 학습.

당신이 이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배우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또한 영적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가 신성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그들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울 수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나중에 올 모든 도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지연되거나 그들이 특정 결과를 보길 기대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태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사실, 교회에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만 그들이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11절: 그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행하며,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 께 감사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12절: 당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감사하라.

성도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과 능력. 성도의 상속은 펼쳐질 예정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성도의 상속은 실재합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산과 참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13절,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어떤 번역을 하든, 그가 성도의 기업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있지만, 그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빛 가운데서 행하셨거나, 빛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13절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는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구원하셨으며, 빛과 빛 속의 은총을 대조합니다. 그는 우리를 어둠에서 데려가셨고, 그 말은 그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어둠의 세력의 활동으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가 데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무도 아닌 왕국으로 옮겨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도록 합시다. 바울이 찬양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직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인내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를 위해 한 기도의 종류를 알고 싶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일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도전과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상기인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아름다운 상기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전달하셨습니다.

나쁜 직장을 가진 적이 있나요? 상사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이런 처지에 있는 게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 자리에서 꿈의 직장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전근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는 콜로새서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데려오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도록 합시다.

사물을 제대로 파악해 보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교회는 온갖 혼란과 분열과 허위로 자신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내가 이것 더 안다고 말하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우리는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 앞서 말했듯이, 이 편지를 읽고 희망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골로새서 1장에서 배우는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당신은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네 번쯤 접하고 배우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편지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잠시 멈추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당신은 뇌 운동을 위한 학자가 되는 데 필요한 힘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저는 바울이 어떻게 이 틀을 설정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가운데로 데려오신 분입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그 특정한 구절이나 문단을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돌아올 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두 번째이며,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감사 기도입니다.